scue 이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DT BRAND POWER 13

DT브랜드파워대상

ICSI 인터넷소통대상

2017 NEWSLETTER AUTUMN VOL.37

아시아 최초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 건립된 차이콥스키 동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샤흘르 벨 Charles Belle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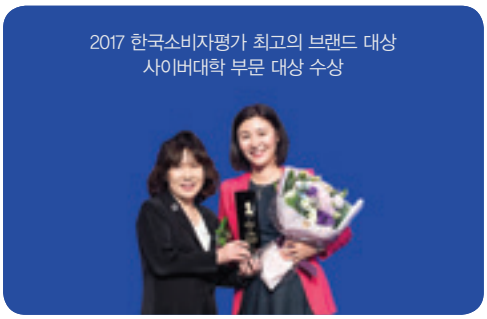
서정적 자연표현주의 작가로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그를
20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예술가로 선정했다.

De son avantage delicieux
캔버스에 유채, 2011.

놀라운 속도감으로 남긴 강하고 역동적인 붓터치가
압도적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사흘르 벨의
정교하면서도 예민한 감각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CONTENT

2017 AUTUMN VOL.37



발 행 일	2017년 11월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발 행 인	이은주 총장
편집주간	김지연 교수
디 자 인	이향아 교수, 김은수 팀장
편집위원	박병석, 구희정, 한수미, 홍선관, 김미주, 임세희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53 한국경제매거진 (주) 02-360-4856

SCU FOCUS

02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4 2017년 신·편입생 사이버오리엔테이션
06 2017년 하반기 입학설명회
07 2017 IAUP 비엔나 세계대학총장협회 총회 참석
08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09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부회장 선임
10 2017 스웨덴의 날
11 2017 러시아의 날
12 서울사이버대학교 「2018년도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
13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이신 명예교수 특강, 제1차 Insight 특강

SCU TODAY

14 차이콥스키 동상 제막식
16 재학생 하계 해외탐방
18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 글로벌 학생 교류 프로그램
19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20 커리어코칭센터 취업 특강
21 사회복지전공 소시오드라마 릴레이 워크숍
22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 특강

SCU PEOPLE

23 자유전공학부 독서클럽
24 해외 명사 – 제러드 벨처 개발본부장
26 졸업생 사회공헌 인터뷰 – 신영균 동문
27 졸업생 수상 인터뷰 – 김진희 동문
28 졸업생 진로 인터뷰 – 최혜진 동문
29 졸업생 진로 인터뷰 – 강선혜 동문
30 졸업생 이직 인터뷰 – 정용오 동문
31 재학생 인터뷰 – 정순옥 학우
32 사회복지사 1급 특강 및 졸업생 인터뷰 – 오희정 동문
33 졸업생 자격증 인터뷰 – 구민성 동문, 권문자 원우
34 SCU WAVE 사회봉사단

SCU STORY

36 2017 연합 MT
38 지식 나눔 시민 무료 강좌
40 칼럼
42 업무협약
44 교수 동정
46 뉴스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독자엽서로 이동합니다. 의견 주신 분 중 1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배움의 열정이 결실을 맺다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서 8월 19일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전경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본교 캠퍼스에서 8월 19일에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최고령 졸업생인 박혜경 학우(만 69세, 상담심리학과)와 최연소 졸업생인 박윤규 학우(만 19세, 법무행정학과)를 비롯해 학사 1067명, 석사 81명, 총 114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학부 2만 9124명, 대학원 502명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으로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졸업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꽃다발을 들고 온 가족들과 일찍부터 교정을 찾은 졸업생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학교가 준비한 다양한 졸업 이벤트를 즐겼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나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트릭아트 체험, 금메달 수여, 정유년 이벤트 등 매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졸업 후 소망을 적어주는 손글씨 엽서 이벤트를 진행했다.

모두를 위한 대학, 배움을 향한 의지의 동반자

졸업 가운을 입은 졸업생과 가족들이 본교 차이콥스키홀을 가득 채웠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기와 함께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의 내빈과 본교 이은주 총장이 입장하고 여러 교수진이 연단에 오르는 것으로 본격적인 학위수여식이 시작됐다. 이은주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졸업생과 가족들

축사를 하고 있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졸업 축하 손편지를 든 이은주 총장과 졸업생들

"리더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출발이 돼야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대학, 배움을 향한 의지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라며 "숭고한 도전과 값진 결실에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6년 2월 본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작년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다시 이렇게 학교를 찾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고령 졸업생 박혜경 학우(만 69세, 상담심리학과)

2015년에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한 박혜경 학우는 '2016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의 최고령 졸업생이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상담심리학과는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공부는 평생 안았던 인생의 고민을 깊게 파고들게 했고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는 법을 알게 했다.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는 나침반이 됐다. "공부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었기에 한 번도 공부가 힘든 적이 없었죠. 공부로 삶의 지평과 시야가 넓어졌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열심히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경 학우는 국가 공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 중이고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전공을 살린 봉사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졸업생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이은주 총장과 정영애 부총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학위수여증을 전달했다. 졸업식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이어 우수 졸업생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이사장상은 상담심리학과 채은미 학우가 받았다. 학부별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총장상, 봉사상,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공로상 수상자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다.

학과별 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끝났다. 학위수여식은 끝났지만 졸업생의 또 다른 미래와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시 한 번 졸업을 축하하고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는 졸업생들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전국 각지에서 공부하는 신·편입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다.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보기

학생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하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버튼 클릭

사이버오리엔테이션 구성

- **환영 인사 – 총장**
- **대학 소개**
- **학사제도 안내**
- **학과소개 – 학과장**
  - 사회복지학부
  - 심리·상담학부
  - 사회과학부
  - 융합경영학부
  - IT공학부
  - 디자인학부
  - 문화예술학부
  - 자유전공학부
- **총학생회 소개 – 총학생회장**
- **대학 홍보 동영상**

총장 환영 인사

이은주 총장의 환영인사

이은주 총장이 신·편입생을 환영하며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과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인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대학에서 훌륭한 교수님과 열심히 공부해 전공 학위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대학 소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의 대학소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스마트 교육과정, 이러닝 표준화 기반 레고형 학습 시스템, 2차원 경력 개발 체계(SCU; Special Career Up), 이러닝 선도 리더십과 국내외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한다. 한·아세안 사이버대학(ACU) 설립 등 자랑스러운 학교의 위상과 전국의 캠퍼스와 심리상담센터, 학부와 대학원의 개설학과에 대해 안내한다.

학사제도 안내

교무처장 정상원 교수의 학사제도 안내

교무처장 정상원 교수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위 로드맵, 맞춤 학기제 안내, 수업 안내, 시험 안내, 성적 안내, 휴학/복학·전과·복수전공, 졸업안내, 각종 신청 안내 등 학사제도에 대해 항목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3학년 편입학자, 2학년 편입학자, 1학년 신입학자 등 각 입학 조건별로 다른 졸업 요건과 학생 맞춤 학기제, 수강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학과 소개

정보보호학과 노건태 교수의 학과 소개

학과 소개 영상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리상담학부, 사회과학부 등 8개 학부의 28개 학과 (전공)에 대해 교수들이 직접 소개한다. 학부별, 학과별 특장점과 체계화된 교육과정, 전공 관련 취득 가능한 자격증을 알리고 글로벌자격관리센터 이용 방법을 소개해 신·편입생들이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총학생회 소개

제 17대 총학생회장 임양희 학우의 총학생회 소개

임양희 총학생회장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으뜸이 되는 자랑은 훌륭한 인격과 불굴의 의지를 갖춘 '대단한' 학생들임을 이야기하며 학교의 자랑과 장점에 대해 소개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프라인 활동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총학생회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대학 홍보 동영상

대학 홍보 동영상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특장점을 요약해 담은 영상으로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인 전국 8개 캠퍼스 조성, 방송국 수준의 국내 최대 규모 Full HD급 스튜디오, 사이버대학교 최초 피아노과, 국내 최초 원격 피아노 교육 시스템 도입, 사이버대학교 중 최다 협력 및 제휴기관, 3만6000여 동문 네트워크 구축 등 신·편입생이 직접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예비 서사인을 환영하는 시간

2017년 하반기 입학설명회

하반기 입학설명회에서는 예비 서사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캠퍼스 규모와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

7월 1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는 하반기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신·편입생들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입학설명회가 열렸다. 예비 서사인들은 본교 교직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일대일 입학 상담 코너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학과와 진로 등의 정보를 구하려는 예비 서사인을 위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학교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의 학교 소개와 학사 안내가 있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학생 맞춤 1년 4학기제를 도입, 신입생은 3년, 편입생은 1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자격증과 경력개발 등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인생이 달라진다

특별 행사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술 공연이 이어졌다. 국내 3대 마술사로 꼽히는 김청 씨와 함께 마술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과 교수와의 만남 시간에서는 각 학과 교수들이 학과의 특성과 학사 과정, 졸업 후 진로, 자격증 취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캠퍼스 투어에서는 스튜디오 등 학교시설을 둘러보며 우수한 이러닝 플랫폼과 고품질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참여한 모든 이들은 다이어리와 우산, 달력 등의 기념품을 선물받았다.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예비 서사인의 마음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문구가 마음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2017년 하반기 입학설명회가 열린 차이콥스키홀에 자리한 예비 신·편입생들과 학사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고민
2017 IAUP 비엔나 총회 참석

이상균 이사장, 이은주 총장이 2017 IAUP(세계대학총장협회) 총회에 참석했다.

2017 IAU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총회가 7월 5~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올해 18회를 맞은 IAUP 총회에는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본교 이은주 총장이 참석해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이상균 이사장은 IAUP 신임 상임이사가 되었고, 이은주 총장은 집행이사를 연임하게 됐다.

세계 80개국 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IAUP는 세계 각국 대학총장의 우의 증진과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6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창립됐다. IAUP는 3년마다 특정 테마를 정해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총회는 '교육에서의 혁신'을 테마로 열렸다.

이번 IAUP 총회는 7월 5일 오스트리아 빈 시청에서 오프닝 칵테일 파티와 함께 막을 올렸다. 다음 날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학습과 트레이닝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개발(開發)을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 '교육에서의 혁신'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7월 7일 '새로운 대학 모델', '21세기 교육의 과제', '산업, 교육을 만나다', '교육의 새로운 경향' 등을 주제로 한 각국 대학의 발표에 이어 7월 8일 폐막식을 끝으로 올해 총회는 막을 내렸다.

2017 IAUP 총회에 참석한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두 번째 줄 중앙)

빈 시청에서 진행된 2017 IAUP 총회 오프닝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진행된 각국 대학의 발표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사이버대학교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소비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시상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6월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직접 뽑은 좋은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똑똑한 소비자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올해 첫 행사에서는 29개 브랜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로 선정됐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관련 설문 조사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각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상품성·만족도·구매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소비자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했다.

장학금 규모 총 140억원으로 전국 1위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은 소비자, 즉 학생들이 직접 본교를 최고의 대학 브랜드로 인정했다는 뜻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최첨단, 최대 규모의 대학 캠퍼스와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현재 1만2000여 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8개 지역 캠퍼스를 통해 실습 세미나, 동아리 활동 및 지역 모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해 일반학기(필수)에 방학 6주간의 집중학기(선택)를 더해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모든 재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업주기별로 지도교수와 담당조교가 배정돼 일대일 밀착 학사관리를 제공하는 점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장점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자격관리센터'와 '커리어코칭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원하는 맞춤식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 규모는 총 140억 원으로, 전국 사이버대 가운데 1위(2016 정보공시)를 차지했다. 신입생 대상 장학전형은 17개이며 재학생 대상으로는 22개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오른쪽)과 시상자인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 상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수상한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봉사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부회장 선임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부회장에 선임됐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김흥권 지사회장

대한적십자사는 7월 19일,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상균 이사장은 2017년 7월 19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2년간 역임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각 지사에 임원으로 회장 1명, 4명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대한적십자사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인연은 이전에도 있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된 구호단체로 지역보건사업과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대통령을 명예총재, 국무총리를 명예부총재로 추대하는 공적 기관으로, 이번 이상균 이사장의 서울특별시지사 부회장 선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봉사하는 삶에 대한 신일학원의 높은 가치부여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관계자들

스웨덴의 디자인과 문화를 경험한 시간

2017 스웨덴의 날

본교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스웨덴 명예 영사이자 한서문화예술협회 회장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스웨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환영사를 전하는 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

스웨덴 국경일(6월 6일)을 기념하고 스웨덴의 문화를 체험하는 스웨덴의 날 행사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6월 1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 대사관의 초대를 받은 내빈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이세웅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본교 교직원들이 참석해 스웨덴의 날을 축하했다. 지난해 인천·경기지역 스웨덴 명예 영사로 임명된 이상균 이사장은 행사 말미에 진행된 '행운권 추첨' 이벤트에서 추첨자로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올해 스웨덴의 날은 '디자인 바이 스웨덴'을 주제로 진행됐다. 스웨덴의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중앙홀에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안 회그룬드(Ann Höglund)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디자인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스웨덴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며 "행사장에 설치된 여러 기업관을 통해 스웨덴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웨덴의 날에는 볼보자동차와 볼보 건설기계, 아틀라스 콥코, 사브, 테트라팩, 스카니아 등 스웨덴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스웨덴 전통 음식은 물론 스웨덴의 음악가 '카시오페이아', '진By진' 등의 축하 공연이 마련돼 스웨덴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본교 교수진

스웨덴의 날 행사 전경

한·러 교류와 우호를 다진 하루

2017 러시아의 날

러시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과 한러문화예술협회 회장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러시아의 날을 축하했다.

환영사를 전하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의 날 행사에 참석한
본교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은주 총장

러시아 음악을 연주한
축하 공연

러시아의 날은 러시아 연방이 설립된 1990년 6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러시아 국경일이다. 러시아는 물론 해외 공관에서도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6월 9일 러시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랫동안 문화적·교육적 교류를 통해 러시아와 인연을 맺어 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러시아의 날 행사를 후원했다.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은주 총장을 비롯한 본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특히 한러문화예술협회 회장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도 함께 참석해 러시아의 날을 축하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주한 러시아 대사는 "1990년 6월 12일, 러시아 역사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히고, "27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문화에서 거대한 변화를 겪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특사 송영길 국회의원은 "청장년 세대들에게 러시아는 역사·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영감을 주는 나라였다"며, "새로운 민주 러시아의 탄생, 러시아 연방 주권 선포의 날을 축하하며, 러시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환영사가 끝난 후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이상균 이사장 등 주요 내·외빈이 단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러시아 가곡과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러시아 전통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러시아 문화를 체험했다.

엘살바도르 대학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8년도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

2017년 4월에 진행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엘살바도르 교육부 간의 교육협력협정서 체결식
(왼쪽 세 번째부터 밀턴 A. 마가냐 주한엘살바도르 대사,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카를로스 M. 칸주라 엘살바도르 교육부장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8년도 민관협력보조금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정부의 개발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인 민관협력 보조금사업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 교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분야에 '엘살바도르 이러닝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선정되었다. 엘살바도르 고급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연구 및 컨설팅, 교직원 이러닝 역량강화 연수, 이러닝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필수 레퍼런스 및 기자재 지원 등의 주요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Milton Alcides Magaña 대사)의 요청에 따라 엘살바도르 현지 대학의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다. 2017년에는 엘살바도르 교육부(Carlos Mauricio Canjura 장관)와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분야의 이러닝 협력 파트너십을 공식화하였다. 향후 KOICA와 신규사업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엘살바도르국립대학교(UES), 엘살바도르공과대학교(UTEC) 등을 거점으로 이러닝을 통한 엘살바도르 고등교육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3년간 총액으로 약 9억 원이 소요된다.

미국 상원과 대한민국 정부 컨설턴트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이신 명예교수 특강

인디애나대학교 로이신 명예교수와 함께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과 교직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6월 8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블루밍턴 소재)의 로이신 명예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로이신 명예교수는 195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8세에 인디애나대학교 행정대학 교수가 됐다. 미국 상원의 자문과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로이신 명예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인재의 조건과 역량,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국제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례 등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갔다.

제1차 Insight 특강

AI의 교육 적용 사례와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

AI의 교육 적용 사례 특강에 참여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Insight 특강이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본교 A동 503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비즈니스모델, 전자상거래, 디지털 미디어 경영, 전자정부, 인공지능(AI) 및 지식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미국인공지능학회 (AAAI)가 수여하는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을 수상하기도 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소셜네트워크과학과 이경전 교수가 AI의 교육 적용 사례와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 에 대해 특강했다. 이경전 교수는 AI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러시아의 깊은 인연

차이콥스키 동상 제막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캠퍼스에 아시아 최초로 러시아 정부가 인증한 차이콥스키 동상을 건립했다.

아시아 최초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건립된 차이콥스키 동상

5월 27일 열린 차이콥스키 동상 제막식

왼쪽부터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 이상준 교수(국민대), 엄구호 교수(한양대),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알렌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 교육문화센터 뿌쉬낀하우스 김선명 원장, 본교 피아노과 이경숙 석좌교수, 이은주 총장,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 김현택 교수(한국외국어대), 김세일 교수(중앙대), 본교 이세웅 명예이사장

러시아 최고 예술 작품이 있는 캠퍼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5월 27일 차이콥스키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본교 이은주 총장 등이 참석했다. 본교에 건립된 동상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차이콥스키 음악원에 있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최고 작품으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동상 원본은 베라 무히나(1889~1953년)가 제작했다. 베라 무히나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차이콥스키 동상 원본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 설치된 스타인웨이&선즈 그랜드피아노

최고로 추앙받는 조각가다.

러시아는 예술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거나 모조품을 제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본교 차이콥스키 동상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히 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신일학원의 2대에 걸친 인연과 본교가 기울인 각고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세웅 명예이사장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1990년 직후부터 러시아를 찾았다. 이후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러시아 문화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고 러시아 정부 훈장도 두 차례 받았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도 현재 한러문화예술협회 회장으로 있다.

이상균 이사장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차이콥스키의 동상이 본교에 세워져 기쁘다"며 "이번 동상 설립을 계기로 한–러 상호 간 문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차이콥스키 동상을 성공적으로 재현, 설치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한러문화예술협회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박현석 부총장, 백승철 실장 그리고 동상을 제작한 박상규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러문화예술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본교 박현석 부총장

차이콥스키홀에 스타인웨이&선즈 그랜드 피아노 설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동안 러시아와 이어온 교육·문화적 인연으로, 학교 설립 당시 본교 캠퍼스에 500석 규모의 차이콥스키홀을 갖추고 로저스–콘솔리 겸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올해 7월에는 차이콥스키홀에 대형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았다. 이 피아노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동경하는 스타인웨이&선즈 풀콘서트 그랜드 피아노로 세계 콘서트홀의 99%가 채택하는 '피아노계의 명품'이다.

러시아와 음악 교류 확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정통 클래식 피아노과를 개설하고 온라인 강의를 위한 피아노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본교 피아노과 윤소영 교수가 '제10회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1992년 모스크바에서 시작한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은 17세 미만 청소년 뮤지션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피아노과

피아노과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음악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피아노 건반 터치·페달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일대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레슨을 제공한다.

- **러시아의 차이콥스키음악원과 실시간 원격교육 MOU 체결, 원격 레슨 가능**
- **재학생 러시아 해외연수 프로그램**
  ❶ 러시아 3대 음악대학 중 하나인 모스크바 그네신음악원 견학
  ❷ 러시아 유명 교수의 개인 레슨, 마스터 클래스, '러시아 문화예술의 역사와 현재' 수업 및 워크숍 참여
  ❸ 모스크바 유명 공연장 견학 및 공연 관람
  ❹ 그네신대학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재학생 하계 해외탐방

방콕의 황금빛 세계문화유산 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배우다

하계 해외 탐방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태국 방콕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했다.

2017 하계 해외 탐방(방콕)에 참여한 본교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계 해외 탐방 지역은 태국 방콕이었다.

제 18기 태국 해외 탐방에는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의 인솔하에 재학생 24명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함께했다. 주요 일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유타야를 방문하고 수상가옥과 야시장 등 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재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전공 외의 문화, 예술, 경제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공유했다. 낯선 문화 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 자체가 큰 배움이 된 소중한 시간이자 특별한 추억이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의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넘어 실제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동계 해외 탐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해외의 정부기관, 기업체, 대학·연구소·사회단체를 방문하고 세계의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시야와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하계와 동계, 각 1회씩 총 2회를 실시하는데, 참가자는 학점, 외국어 성적, 탐방계획서 등에 대한 점수를 평가해 각 과에서 소수만 선발된다. 비용은 학교에서 절반을 지원한다.

그동안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등 다양한 국가를 다녀왔다. 제 9기 베트남, 제 11기 캄보디아 등 해외탐방에서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방문 지역의 낙후된 시설 보수 등 봉사활동을 함께 펼쳐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8기 하계 해외 탐방 후기

상담심리학과 윤연호

"태국의 고도(古都) 아유타야 는 199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1350년 우통왕에 의해 건립됐습니다. 1767년 미얀마의 침공을 받기 전까지 417년간 태국의 수도였죠. 현재 파괴된 사원들과 머리 잘린 불상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침공 당시의 잔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건행정학과 김민주

"태국은 살아 있는 역사 박물관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해외 탐방은 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유물·유적을 보고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김미경

"40대 후반에 접어든 내게 대학생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이자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학우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에 기대 반 설렘 반이었는데, 4년간 열심히 공부해 8월 졸업을 앞두고 대학 생활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유타야 역사도시를 방문한 재학생들

부동산학과 손갑주

"늦은 나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들어와 첫째 소원을 이룰 수 있었고, 둘째는 해외여행을 한 번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마침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들어와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심리학과 안영주

"이번 해외 역사 문화 탐방은 행복의 기준과 더불어 내 삶 전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3박 5일 동안 학우들이 서로 챙겨주는 모습은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같았고 권금주 교수님께서도 편하게 대해 주셔서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기회를 준 학교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방콕의 왓포사원 등 주요 유적지를 방문한 재학생들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 여름 교환학생 프로그램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 최초로 글로벌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학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이버대학 최초로 글로벌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교류 협력 대학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CSUSB)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 1주, 미국 현지 교육 2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7월 30일 시작된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CSUSB 창업지도자 과정(Entrepreneurial Management Certificate)을 이수했다. 교육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근에 자리한 기업 '아마존' 등 미국 내 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가자 특전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의의 창업지도자 과정 수료증이 발부되고 미국 현지 대학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숙박을 통한 문화체험, LA현지 투어 등이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수 대학들과 협력을 맺고 학술적·문화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재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탐방과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상세한 후기는 다음 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일정	연수 프로그램 내용
7월 31일	•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생성과 사업 기회 인식 • 시장 생존능력 증명 및 사업 계획 소개 방법
8월 2일	• 현금흐름 관리를 위한 견적 재무표 개발법 • 사업 리스크 경감 노하우
8월 7일	• 패키지 전문 기업 '소로 패키징(Thoro Packaging)' 견학
8월 9일	• 벤처 펀딩의 조건
8월 14일	• 기업의 마케팅 기술과 계획 수립 방법
8월 16일	• 사업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실습 • 인증서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8월 17일	• 아마존 주문이행센터 견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CSUSB

미국 로스앤젤러스(LA)에서 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샌버나디노에 있다. 23개 캠퍼스로 이뤄진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대 시스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에 속한 대학으로, 재학생은 1만7000여 명, 학과는 46개, 전공 과정은 30개를 운영하고 있다. 8개국 70개 유명 대학을 연계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대학교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본교 대학, 입학, 대학원 등 3개 사이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홈페이지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 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前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인한 인증 심사기관인 웹와치(주)로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대학(www.iscu.ac.kr)·입학(apply.iscu.ac.kr)·대학원(grad.iscu.ac.kr) 등 3개 사이트가 WA인증마크를 받았다. 이는 2012년에 사이버대학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4번째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세 홈페이지가 모두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라는 의미다.

인증 심사 평가는 방송통신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OT-10.0003/R2)'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151030)'에 따라 1차 사용자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각 홈페이지는 평가 기준인 항목별 준수율이 전 항목 100%로 확인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보편적 웹 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웹 접근성은 웹 사이트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표준 지침을 준수하는 사이트에 대한 인증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웹와치,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등 인증기관을 지정해 웹 접근성을 평가하고 품질 인증을 수행한다.

커리어코칭센터 취업 특강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성공적인 진로 탐색**

커리어코칭센터의 1:1 맞춤형 진로 상담과 ㈜커리어넷의 취업 특강이 취업의 길잡이가 돼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커리어코칭센터는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재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1:1 맞춤형 진로 상담과 커리어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성공 프로젝트!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이 5월 20일 본교 A동 502호에서 진행됐다. 본교 커리어코칭센터 이승희 커리어코치는 국가직무능력표준화(NCS) 등 입사지원서에서 중요해진 최신 경향을 전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신뢰감을 주는 사진 선별 요령부터 지원 방식에 따른 지원서 작성 전략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또한 6월 17일 본교 B동 102호에서 김현아 연구원((주)커리어넷 경력개발연구소)의 진행으로 '나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김현아 연구원은 "나를 이해하면 불안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관계를 수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와 같은 인지 사고 전환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먼저 참여 동기를 밝힘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했고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실습 활동을 통해 나의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다. 스트레스가 긍정적 사고로 전환되는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6월 22일에는 '취업 성공 프로젝트! 지원서 작성과 면접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이승희 커리어코치가 특강을 진행했다. 1교시에는 채용 트렌드를 비롯해 실전에 대비한 취업 특강과 입사지원서 작성법, 강점 발견과 스토리 만들기,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소개했다.

2교시에는 1분 스피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면접 트렌드 및 면접 전략, 유형별 면접 역량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취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콕콕 짚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커리어코칭센터 이승희 커리어코치와 특강에 참여한 재학생들

2017 사회복지전공 역량강화 경쟁력 사업

소시오드라마 릴레이 워크숍

사회복지전공에서는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시오드라마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해 재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사회복지전공이 개최한 '소시오드라마 릴레이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에서는 임상 분야 중 특히 소시오드라마 및 사이코드라마에 관심 있는 학부 재학생 및 예비 입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6월 24일 기초과정 워크숍, 27일 심화과정 워크숍으로 나눠 본교 A동 503호에서 진행됐고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조성희 교수가 강의했다.

조성희 교수는 소시오드라마의 기본 개념과 역사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소시오드라마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즉흥적으로 역할극의 형태를 취해 함께함으로써 정서적 카타르시스와 인지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법입니다."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수련감독 전문가(TEP)이기도 한 조성희 교수는 역할극에서의 규칙과 요소들을 설명하고 다양한 임상 사례를 소개하며 질의응답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참가자들은 주인공, 보조자, 관객이 돼 역할극에 참여하는 등 소시오드라마를 실연하며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소시오드라마의 역할과 다양한 기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깊이 있게 접근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분야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고 진로를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워크숍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소시오드라마 릴레이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전공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다.

진지하게 워크숍 내용을 경청하는 학생들

심리상담학부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 특강**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을 위한 본교의 노력, 졸업생의 응원, 재학생의 열기가 똘똘 뭉쳐 합격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갔다.

심리상담학부의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을 위한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오혜영 특임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는 2017년 9월 시행된 16회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을 위해 3주에 걸친 특강을 준비했다. 심리상담학부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2005년부터 시험 대비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 과목별 특강, 현장 전문가 특강, 필기 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 시연 등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월 1일과 8일에는 심리측정 및 평가,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등 각 시험 과목에 대해 과목별 시험대비 특강이 진행됐다. 최혜라 교수, 김현진 교수, 김지연 교수, 한수미 교수, 임정선 교수 등 본교 상담심리학과 및 특수심리치료학과 전임교수들이 각기 전공 과목을 맡아 열강했다.

합격자의 시험 대비 정보 공유

본교 A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7월 22일 열린 특강에는 14회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딴 황인회 동문이 직접 합격 수기를 들려줬다. 합격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선 황인회 동문은 "스터디 모임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탈락 없이 끝까지 함께한 이들은 다 합격했다는 거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재 선택에서 시험 100일 전략, 직전 대비, 시험 당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안을 콕 짚어서 알려줬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모의시험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최종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참석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오혜영 특임교수가 청소년 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혜영 특임교수는 청소년상담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시험과 면접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은 특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전공학부 독서클럽

책과 토론으로 철학과 역사를 만나다

자유전공학부 독서클럽 학우들은 독서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서로 지식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독서클럽은 인문·사회 분야에 걸친 다양한 독서를 기본으로 하는 모임이다. 평상시 접하기 힘들었던 철학·문학 등 관련 분야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모여 토론한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들 텐데도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저절로 이끌려 나오는 것은 모임을 통해 돈독해진 인간적인 유대 때문이기도 하다.

독서클럽은 자유전공학부 김용희 학부장과 권구순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 김용희 교수는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모임이 끝난 후 식사까지 함께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으로는 대응해 나가기 힘듭니다. 다양한 독서가 중요한 이유죠. 특히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학우들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통찰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며 조금씩 성장하는 중이다. 자유전공학부 1학년 박정훈 학우는 독서클럽을 통해 흥미로운 책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책 중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기원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갈등, 사회변화, 심지어 당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알게 돼 생각할 점이 많았습니다. 모임을 통해 학우들, 교수님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학우들은 독서클럽을 통해 친분을 쌓다보니 평소에도 밴드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일상의 희로애락까지 함께 나누며 서로 힘이 돼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독서클럽을 통해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왼쪽부터 자유전공학부 독서클럽의 서동욱, 편창선, 임영서 학우, 김용희 교수, 엄윤상, 박정훈 학우

제러드 벨처 (Jerrod Belcher)
호주 사이트 (SITE) 그룹 직업훈련사업 개발본부장

온라인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 기술이 시도될 것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온라인 직업교육은 어떤 것인지 호주의 교육 훈련 전문 기업 사이트 (SITE)의 제러드 벨처 직업훈련사업 개발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 일하시는 사이트그룹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계기로 입사하셨는지요.

사이트 그룹(Site Group International Limited)은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 훈련 전문 기업으로, 학습자와 훈련생들을 위한 직무 성과 중심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및 현직에 있는 학습자들이 승진 등에 필요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야심차고 '할 수 있다(can do)'는 기업 풍토에 매력을 느껴 사이트그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사이트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TESOL 아시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타 TESOL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우선 'TESOL 아시아' 과정은 아시아 내에서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교수 기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TESOL 과정들이 성인교육학과 내용적 측면에서 진부한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 온라인 과정은 21세기 영어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다루고 있고 제2언어(second language) 습득의 세계적 석학

인 스테판 크라센(Stephen Krashen) 교수님과 로드 엘리스(Rod Ellis) 교수님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TESOL 아시아 과정'은 세계 온라인 교육의 흐름 중 하나인 게임화(gamification)와 최신의 성인 교육 원칙을 적용해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과 기법들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것에 경쟁 우위적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고용 창출,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전문가로서 한국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산업 수요와 함께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기관들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작업이 요구되죠. 그리고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고 배워야 하는 기술의 수준이 초급인지 전문가 수준인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이런 사전요건들을 알게 되면 강조되는 지식·역량·성과의 기준을 개발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경영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 스킬(hard skill)과 협상과 팀워크 같은 활성화형 소프트 스킬(soft skill)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들이 하드 스킬의 연마에 집중하는 반면 고용주들은 점차 소프트 스킬에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과정에 잘 포함해 최고의 교육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직무에 맞는 자격을 만드는 것이겠죠. 이제 요구된 지식과 기술, 역량을 알았으니 어떻게 학습자들이 배우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온라인 교육에 능숙해서 새로운 교육 기술들이 시도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직업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온라인 교육이 전통적 대면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조수단에 머무를까요.

우리 회사도 온라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 이는 대체적 수단 혹은 보조적 수단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이미 많은 직업교육을 위한 게임화 콘텐츠는 학습자로 하여금 취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콘텐츠가 동영상 강의로 학습이 가능한 주제와 특정 과정에서는 적절하지만, 제한이 있기에 완전한 대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 훈련에서 현장실습을 제외할 순 없겠죠. 고용주들은 용접의 이론만 아는 구직자보다 이론과 함께 산업에서 요구되는 초급 혹은 중급수준의 실무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채팅·포럼·토론 등 새로운 온라인 교육 도구들이 성인 학습 원칙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파급력은 더 커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블렌디드 러닝이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방문하셨는데 소감과 함께 향후 본교와 사이트그룹과의 산학협력 가능성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캠퍼스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훌륭한 캠퍼스에 다양한 인프라와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매우 경쟁력이 있고 차세대에 영감을 줌으로써 장차 한국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사이트그룹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같은 경쟁력 있는 온라인 대학과 협업할 기회가 많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플랫폼을 통해 사이트그룹이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더 나아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사이트그룹이 운영하는 필리핀이나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의 캠퍼스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교를 방문한 호주 사이트 (SITE) 그룹 제러드 벨처 직업훈련사업 개발본부장

상담심리학과·사회복지전공(복수전공)졸업
나눔이웃주민조직사업 신영균 회장

마음을 다해 이웃을 돌보는 삶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 힘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꿈꿨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복지 전문가로서 새로운 인생과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나눔이웃주민조직사업 신영균 회장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지역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을 올해부터 맡았고 나눔이웃주민조직사업 회장을 맡은 지도 4년이 됐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사회복지 전공을 복수전공해 졸업했다. 이후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눔이웃주민조직사업 회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위원으로서 복지관의 사업이나 행사 기획은 물론 예산 심의에도 참여한다. 주민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복지사로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통해 꿈꾸고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도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인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여러 학교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던 그는 우연히 참여한 '상담심리'를 주제로 한 교사 세미나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슴에 품었다.

"수업이 실제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상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미술치료 수업은 제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검사를 통해 학생들과 더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청소년 상담 관련 수업과 미술치료 수업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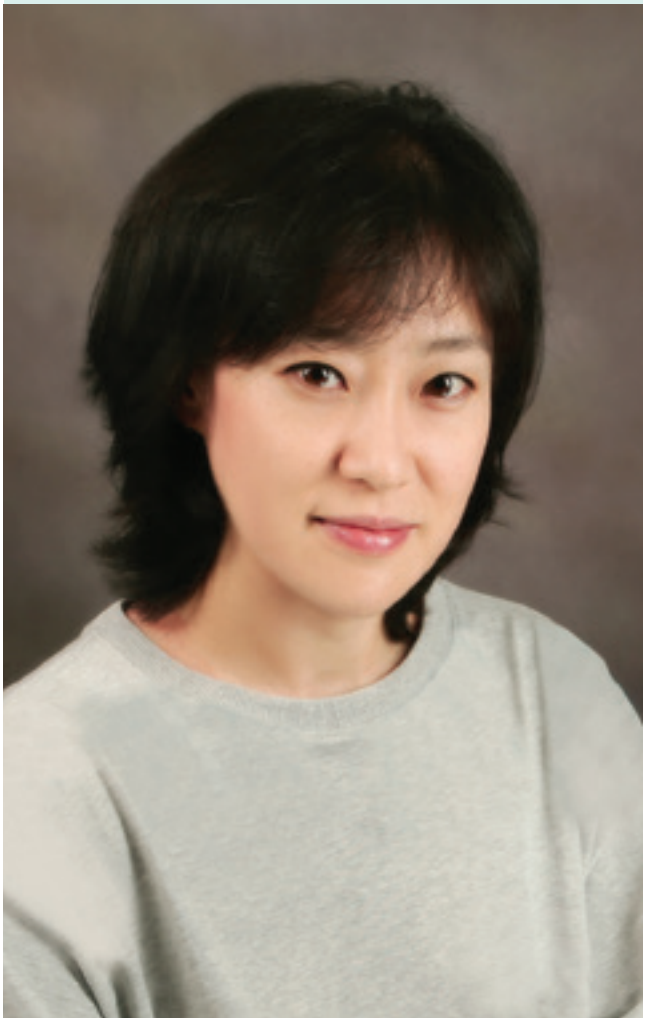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생겨 복수전공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죠. 지역 복지사업에 참여할 때 공부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다고 한다. 향후에는 청소년 인성 교육을 위한 강의도 해보고 싶다는 또 다른 목표도 생겼다. 서울사이버대학교과 함께 시작된 신영균 회장의 복지전문가로서의 삶은 앞으로도 많은 이웃과 함께할 것이다.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극단 고도 김진희 대표

절실함으로 찾은 학업,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 수상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 그의 선택과 도전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출발했다.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을 수상한 극단 고도 김진희 대표

극단 고도 김진희 대표는 "소극장을 경영하면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올랐던 김 대표는 소극장을 처음 운영했을 때를 떠올렸다. 극장 운영은 녹록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극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한 김대표는 2013년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길을 찾았더니 결국 길이 보였어요. 그때처럼 예술 경영에 대한 배움이 절실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물어보고 자료 검색을 한 끝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알게 됐어요."

소중한 인연, 의미 있는 일의 즐거움

김진희 대표가 있는 극단 고도는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아비, 규환'이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받았다.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 모순, 권력의 폐해, 계층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아비, 규환'은 쟁쟁한 작품들이 각축을 벌인 가운데 그 가능성과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금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인이라는 자부심도 함께 커진다"고 말했다.

"동기 또는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후배가 끌고 밀어주며 응원하고 지원해 줬고 문화예술경영에 도움이 되는 인맥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입학 당시 온라인 강의에서 배울 것만 잘 챙기고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히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이후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온라인 강의보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예술경영학과에는 마음 맞는 친구가 있고 다양한 일을 도모하는 동문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열정과 교감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학업 의지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만남이나 멘토링 등이 활발하다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학과장님도 오프라인 모임에 동참하고 격려하며 학교와 학과에 애정과 관심을 두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 학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졸업 최혜진 동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그린 인생의 설계도

최혜진 동문은 올해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원하던 공부를 기초부터 실무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최혜진 동문

"이전 대학교 전공 교수님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어요.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공부를 마친 대학교 동기생이 있었는데 큰 자극이 됐죠."

경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최혜진 동문은 졸업 후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무역 관련업에 종사했다. 이후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3학년에 편입해 공부를 계속했다. 계절 학기에도 쉬지 않고 학점을 이수해 올해 조기 졸업했다. 곧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하반기부터 공부를 이어 갈 계획이다.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적 감성을 배우다

최혜진 동문은 편입 후 기초 디자인에서부터 첨단 그래픽 디자인까지 배울 수 있었다. 시각디자인을 비롯해 웹·모바일·미디어아트 영상·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과 특히 멀티미디어 디자인 응용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

"편입한 만큼 더 많이 빨리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을 한 번에 5개까지 신청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죠."

한 번에 다섯 개의 실기 리포트를 제출하는 게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버텼다.

"퇴근 후 한 시간씩 꾸준히 강의를 들었어요. 회사원은 특히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전공에 집중적으로 몰입했고 후반에는 교양 과목 중심으로 수강했다. 교양 수업에서는 최신 이슈도 다뤄 커다란 인생 공부, 사회 공부가 됐다. 어떤 과목은 너무 좋아서 세 번을 반복해 들을 정도였다고.

"사이버대학교라고 해서 절대 공부가 쉽거나 만만하지 않아요. 출석부터 과제, 시험 등 학사 관리 또한 깐깐하고 체계적이어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잘 소화해야 하고요. 덕분에 공부를 확실히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예전에 오프라인 대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최혜진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를 디딤돌 삼아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인생 항로의 기초를 다지고 인생 지도의 밑그림을 선명하게 그려 나갔다고 자신 있게 전했다.

상담심리학과 졸업 강선혜 동문

인생의 갈림길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강선혜 동문은 현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시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분당캠퍼스에서 임상심리사를 준비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강선혜 동문

"살아온 날보다 더 긴 삶을 살게 될 텐데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만한 삶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자아실현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입니다."

강선혜 동문은 원래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호텔에서 근무하며 영업 관리를 했다. 그러던 중,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내린 결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이었다.

진로 변경에 대한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 기초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으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찾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면서 상담심리학과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전공 관련 로드맵이 잘 마련돼 있는 것을 보고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했다.

공부를 할수록 더 커지는 목표

"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로드맵이 잘 정리돼 있어 그것을 기초로 수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돼있어 첫 환영회에서 좋은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선혜 동문은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사 준비와 서울사이버대학교 분당캠퍼스에서 임상심리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실제적인 역량을 갖춘 상담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 과정으로서 청소년 상담사 2급과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전문가 2급 자격을 단기 목표로 갖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은 전문상담교사이지만 교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했기에 교원자격증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목표로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뤄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학과 졸업 정용오 동문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고의 동반자

육군 대위에서 병원의 구매 담당자로 직업을 바꾼 정용오 학우는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직에 성공했다.

"병원 원무과 소속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백신부터 의료 소모품, 일반 소모품 등 제반 물품의 관리와 구매, 각 부서별로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각 부서를 돌면서 긴급히 필요한 의료 물품을 체크하고 오후에는 물품을 배치합니다."

정용오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6월부터 안양 봄빛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군사학을 전공한 육군 대위로 6년 4개월 동안 복무했다. 군에서 주로 참모를 수행하면서 보건 업무를 많이 다뤘는데, 법정 감염병 예방 등 업무를 하면서 보건행정에 관심이 생겼다. 그가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입학한 것은 군 복무를 하면서 보건의료 계열의 지식을 보강해 전문성을 갖춘 장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군에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

"제 꿈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었는데, 보건의료 공부가 즐겁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군인으로서 자비 취학 공부 시 장학금 혜택도 있었고 제가 목표로 했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용오 동문은 군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하고 싶었던 업무'로 잡고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지원했다.

그가 군장교에서 보건행정 전문직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는 보건교육사 외에도 산업위생관리기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선택 과목 수업이 준비돼 있고 학우들이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본교 보건행정학과에서 보건교육사 2급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 4년 만에, 그것도 군 복무 중에 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했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하는 주변인도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정용오 학우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난 후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평생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학교를 다닌 후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보건행정학으로 SSCI(사회과학인용색인)급 논문을 발표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길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상담학과 재학 정순옥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며 얻은 자신감

가족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정순옥 학우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상담사를 꿈꾼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시작된, 나이 일흔이 넘어 새로 꾸는 꿈이다.

"주위에 어려운 가정과 가족 문제로 애태우는 이들을 보며 금전적으로 도울 수 없어도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 상담과 관련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가족상담학과 정순옥 학우는 늘 배움에 미련이 남아 뒤늦게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 대학 진학을 어렵게 결정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가족상담학 공부를 시작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지인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그의 추천으로 대학교 진학을 결심했다. 지병이 있어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을 엄두도 못 냈는데,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졸업장만 받자는 생각으로 입학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욕심이 났고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겼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체계적인 자격증 커리큘럼이 계속 도전하게 만들었다.

더욱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커리큘럼 중 오프라인 특강, 가족상담학과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학제도가 잘 돼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성당과 장애인 시설에서 고통 받는 이웃들을 돕고 싶어 2학기에 노인복지를 복수전공하게 됐습니다."

정순옥 학우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교수진과 지역 스터디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프라인 특강과 멘토링 연계 활동, 인덕원 스터디학습 활동이 처음 접하는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봄과 가을에 있는 MT와 학과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낀 계기였다.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돼 지금 너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는데, 학기를 거듭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상담 분야를 공부하면서 나도 같이 치유 받을 수 있어 더욱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순옥 학우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바로 공부의 즐거움과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학우들이 나이 많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말에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지금 즐겁게 공부하는 내용이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더욱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회복지사 1급 특강 & 사회복지전공 졸업 오희정 동문의 조언

합격을 위한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 졸업생 · 대학원생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특강을 진행한다, 올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오희정 동문이 특강에 참여해 직접 졸업생들에게 합격 노하우를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2017년 5월부터 시험을 치르는 내년 1월까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특강을 시행한다. 현재 4학년 재학생과 본교 졸업생, 본교 대학원생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다.

2018년 1월 예정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직전까지 진행하는 특강은 매회 출석을 체크하며 8회 특강 중 6회 이상 참석해야 핵심 실전 대비 특강을 들을 수 있다.

11월까지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16일에는 본교 A동 차이콥스키 홀에서 8회 차 특강이 열리고 2018년 1월 6일에는 마지막으로 핵심 실전 대비 특강이 진행된다. 핵심 실전 대비 특강은 강의, 실전 모의고사, Q&A 등으로 진행한다. 시험 응시와 합격 여부에 대해 사회복지학부에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합격생 오희정 동문이 전하는 합격 비결

6월 24일에는 김유경 교수의 사회복지조사론 특강에 앞서 올 1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 오희정 동문이 공부 노하우와 합격 비결을 전했다. 2015년 8월 사회복지전공에 편입한 오희정 동문은 당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2017년 2월 조기 졸업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였다.

오희정 동문은 "목표를 세웠더니 공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혔다"고 전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학교 강의안과 교재에 충실했고 출석 관리, 과제 제출, 시험 등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도 도움이 됐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수님의 열성과 훌륭한 강의가 지식과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시험에서 큰 효과를 거둔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가 준비한 특강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주로 혼자 공부한 점은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사회복지학부 심선경 교수와 졸업생 오희정 동문

"학교에서 마련한 특강은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4~5명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학습 일정을 짜고 정보도 공유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 온라인에서 매달 한 번씩 치르는 모의고사를 통해 취약점을 알고 대비하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도 시간이 촉박해 다음을 기약하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도 학교의 체계적인 특강과 일정을 따르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전공 졸업 구민성 동문 & 상담심리대학원 졸업 권문자 원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한 발짝 가까워진 꿈

청소년복지전공을 졸업한 구민성 동문

상담심리대학원을 졸업한 권문자 원우

비로소 열린 청소년지도사의 길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것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제 인생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꿈꾸던 직업을 향한 발판이 됐습니다. "

구민성 동문은 현재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청소년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 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에 편입했다. 목표로 했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취득했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 업무를 하고 싶어 오프라인 특강을 들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자격증 준비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특강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구민성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와 실무를 병행하면서 훌륭한 교수님께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는 특강이 제공되고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흔이 넘어 새롭게 가진 상담·임상심리사의 꿈

권문자 원우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1기 졸업생이다. 현재 아동연구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확신이 부족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 학부 입학 후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본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

"좋은 시설의 학교 캠퍼스와 심리상담센터를 갖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우들과 스터디를 하며 오프라인 대학교와 똑같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방문해 교수님들께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 권문자 원우는 현재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심리 평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자격 시험 응시를 갖추기 위한 수련을 받으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제 이름에 붙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상담사·임상심리사로서 불릴 수 있어 뿌듯합니다. 특히 나이 마흔이 넘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즐겁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SCU WAVE 사회봉사단

SCU WAVE 사회봉사단의 '사랑의 빵 나눔'과 '헌혈증 기증' 활동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고 나누는 기쁨

이은주 총장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사랑의 빵 나눔'과 '헌혈증 기증'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온기 담은 사랑의 빵 전하기

'사랑의 빵 나눔'은 SCU WAVE 사회봉사단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어렵고 힘든 지역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중랑노원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5월 30일 진행된 사랑의 빵 나눔에는 이은주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18명이 참석했다. 오전 일찍부터 센터의 빵 나눔터에 도착한 봉사단은 앞치마와 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빵 만들기에 돌입했다. 미리 발효한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빵 모양을 성형하고 각종 재료를 올려 꾸미거나 칼집을 내는 등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발휘했다. "내가 만든 빵이 더 예쁘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맛이 너무 좋다", "일류 파티시에 같다" 등 유쾌한 수다도 곁들여졌다.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을 꺼내 한 김 식힌 후 일일이 포장지에 담았다. 총 4시간에 걸쳐 단팥빵과 소시지빵 등 총 350개의 빵이 완성됐다. 박스에 차곡차곡 담긴 빵은 지역 소외 계층에게 전달됐다.

사랑의 빵 나눔 행사에 참가해 직접 빵을
만들고 있는 SCU WAVE 사회봉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처장(왼쪽)과 본교 전광호 학생처장

헌혈증 기증으로 생명사랑 나눔운동 실천

대한적십자사는 매월 13일을 '블러드 도네이션 데이(Blood Donation Day)!' 헌혈의 날로 지정하고 헌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에 SCU WAVE 사회봉사단은 매월 13일을 'SCU 헌혈의 날'로 정해 생명사랑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헌혈증을 기부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혈을 받을 수 없는 이웃에게 헌혈증을 기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재학생과 동문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SCU WAVE 사회봉사단은 6월 20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울 나음소아암센터를 방문해 헌혈증 75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장난감을 기증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암 치료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아암 전문 민간단체다. 본교 홈페이지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http://www.kclf.org) 또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들의 폭넓은 동참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SCU WAVE 사회봉사단 사랑의 빵 나눔 행사에 참여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과 교직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연합 MT 현장 스케치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

전국 18개 지역의 24개 학과(전공)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연합 MT가 열렸다. 사는 곳도 전공도 다르지만 모두가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으로서 함께 뛰고 이야기 나누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7 서울사이버대학교 연합 MT에 참여한 재학생들과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연합 MT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변화와 나눔의 제17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후원, 전국에서 온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 100여 명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이은주 총장과 각 학과(전공) 교수진, 정오동 총동문회장, 조용규 제1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우들은 가족과 함께 참여해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학우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뛰고 구르며 가까워지다

연합 MT는 전문 사회자의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단체 활동인 '도전 챌린지', 개막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화 '톡 앤 톡'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 도착한 학우들은 교수님들께 질문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지에 적어 나무에 걸고 총학생회에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총학에게 보내는 편지' 우체통에 넣었다. SNS 이벤트도 진행됐는데, 연합 MT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즉석에서 선물을 나눠줬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연합 MT의 핵심 프로그램인 '도전 챌린지'는 학우들이 지역이나 학과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9~10명씩 한 조가 돼서 진행하는 단체 게임이었다. 8개의 조가 단체줄넘기, 거미줄 통과, 카드섹션 등 5가지 게임을 차례로 수행했다. 게임을 할 때 각 조는 질서·협동·화합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합산해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학우들은 함께 발을 맞춰 줄을 넘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며 그물을 통과하는 게임을 수행하면서 점차 가까워졌다. 특히 카드섹션 게임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빈틈없이 카드를 들어야 해서 협동심이 중요했다. 마지막에 야외에서 모든 조가 협력해 'SCU Festival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문구의 대형 카드를 완성하며 도전 챌린지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합 MT 준비에 참여한 총학생회 수석 부회장 천민주 학우(상담심리학과)는 "학과가 다른 학우들이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은데, 여럿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단합이 잘되고 연합 MT의 취지에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심리학과 3학년 김외정 학우는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데, 다같이 모여 단합해 몸을 움직이니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았다"고 참가 소감을 이야기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학우들과 함께 온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 체험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은 비옷을 입고 물감을 손으로 칠하는 색깔놀이를 하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연합 MT의 개회식이 진행됐다. 임양희 17대 총학생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이은주 총장이 격려사를, 정오동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밤늦도록 교수님들과 함께 나눈 진솔한 대화

개회식 이후에는 학우들이 교수님들에게 질문하는 '톡 앤 톡' 코너가 시작됐다. 전광호 학생처장이 학우들의 질문을 선별해 교수진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수님들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훈훈한 질문이 오가고 질문한 학우와 교수님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우들이 숨은 끼와 흥을 마음껏 발휘했다. 처음 만난 학우들이지만 하루 동안 옆 자리에서 같이 단체 활동을 하고 웃는 동안 더욱 친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날 일정은 아침 식사 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둘레길을 산책한 후 각자 짐을 정리해 해산하는 순서였다. 전공과 지역을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연합 MT는 학우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수님께 질문할 내용을 적어 나무에 걸고 있는 학우들

조별로 진행된 도전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

참가자 모두가 힘을 합해 완성한 대형 카드섹션

연합MT 개회식에 참석한 이은주 총장과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시민 무료 강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과 강연 중인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

주민 대상 지역사회 오픈 강좌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합니다
지식 나눔 시민 무료 강좌

구희정 교수, 정현주 교수가 실생활과 밀착된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6월 22일과 7월 25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특강을 진행하며 지식 나눔 실천에 나섰다. 본교 재학생, 입학 지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가한 지식 나눔 시민 강좌는 본교 B동 7층 대형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온라인 강의 제작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인 출입이 쉽지 않은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활짝 열린 것이다.

6월 22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본교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가 '영유아 발달과 사교육' 을 주제로, 7월 25일에는 청소년복지전공 정현주 교수가 '청소년과 대화하기' 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식 나눔 특강은 본교의 대표 학부이자 사이버대학교 중 최초로 개설된 심리상담학부와 사회복지학부의 전임교수들이 직접 강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본교 심리상담학부는 최다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5개의 직영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 사회복지학부 역시 전국 실습 협력 기관망을 갖추고 있고 복수전공제로 2개 학위까지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가 진행한 '영유아 발달과 사교육' 강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실태 등을 짚었다. 구희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옆집 아이가 한다고 내 아이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원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나친 조기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실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질의응답에 이어 예비 엄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아의 사교육 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

지식나눔을 실천하는 시민 무료 강좌를 진행한 청소년복지전공 정현주 교수와 지역주민들

생활 밀착형 주제로 공감대 형성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 정현주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과 대화하기' 강좌는 최근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맞히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글·영어·일본어를 섞어 축약한 청소년만의 신조어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정현주 교수는 "그렇다고 청소년의 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십대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을 뜻하는 'love', 미움을 뜻하는 'hate'가 뒤섞인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어떤 글자가 먼저 눈에 띄는지에 따른 심리 분석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설명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칭찬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현주 교수는 강조했다.

"버거운 칭찬이나 품성·인성·성격·인격을 평가하는 칭찬은 불쾌감·불안감·불편함을 초래해 자녀를 오히려 위축되게 합니다. 노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성취감을 직접 말하도록 이끌며 그때 드는 느낌을 사실적으로 칭찬하세요. 무관심을 가장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적 대화에서는 자녀 입장이 돼 경청하고 마음을 이해하기, 자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존중·격려·지지·도움 표명하기 등의 대화법을 전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줄게. 지치고 힘들 때 끝까지 지켜봐줄게'와 같은 말을 해주면 자녀와의 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 논리 싸움이나 교훈을 주려는 시도, 잔소리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열등감을 부추기는 말, 비꼬는 말, 억압, 협박하는 말, 부정적인 암시가 있는 말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므로 청소년은 물론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현주 교수는 강좌 마지막에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라는 모토를 전하면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청소년과 대화하기'를 주제로 강의한 청소년복지전공 정현주 교수

사람의 감정

컴퓨터공학과 오창환 교수

우주 만물의 모든 개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이러한 영향은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영적 요소 등으로 이뤄진다. 사람의 심리적 요소는 크게 이성과 감정으로 구성된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모든 경험이 우리들의 뇌 속에 저장될 때에는 각각의 경험에 대한 이성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함께 링크돼 기억된다. 어느 특정한 사물을 볼 때마다 그것에 따른 지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은 우리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감정적 요소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느낌과 경험에 대해 쾌와 불쾌를 끝점으로 하는 막대기 위의 어느 한 점, 즉 감정지수를 저장하고 기억한다. A라는 사람에 대한 내 감정지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고 B라는 사람은 70점 등과 같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주관적으로 감정지수를 매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지수는 첫 만남에서부터 출발한다. 첫인상이 좋으면 감정지수는 80점이나 90점으로 치솟는다.

감정지수의 운용 방식은 사람마다 자신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유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지수 값을 올릴 때에는 조심스럽게 올렸다가 내릴 때에는 자유낙하 식으로 뚝 떨어뜨려버린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홉 번을 잘해 쌓아올린 90점의 감정지수는 한 번의 잘못으로 0점으로 소멸돼버리기도 한다. 이를 당한 상대방은 억울하겠지만 감정지수 운용 방식이 이러한데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사람들 사이의 감정지수 거래는 줬다는 양과 받았다는 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지수에서는 준 사람은 –10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90으로 받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러하니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고만 하고 자신들이 타인에게 준 상처가 깊은 줄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지수는 순전히 상대방이 관리한다.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지수를 깎아내리면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뚝 떨어져버린 감정지수를 어떻게 해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편안한 감정을 표함으로써 감정지수를 올릴 만한 명분을 줘야 한다. **제일 좋은 감정 표현은 이심전심보다 역시 대화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진심어린 사과를 표해야 한다. 사과를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서운해 해서는 안 된다. 감정지수 운용은 그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운한 일들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지수가 떨어질 때에는 억지로라도 원상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 낮은 감정지수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불편하다.

'이것이 아닌데' 하는 억울함이 저절로 생겨나겠지만 그냥 조정해 나가야 한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지수는 대화로 극복하고,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지수는 눈 감고 원상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입식 암기 교육에 대한 변명

교수학습센터 김시원 실장

주입식 암기 교육의 문제는 제도와 평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암기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암기한 지식은 창의성 발현의 바탕이 된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로운 생각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와 같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사회는(특히 고용주와 상사들은) 자신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며 비판적인 분석력을 가진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요구 변화 속에서 '주입식 암기 교육'은 점차 죄악시 돼 가고 있다.

모든 지식 활동의 기본이 되는 암기가 왜 악(惡)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일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에서 참 흥미로운 사례가 나온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얘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 시험을 봐야 A+이고, 미국 학생들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에 반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주장을 펼쳐야 A+를 받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학생들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적었다가는 C 정도의 학점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미국 학생들은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외우지 않았을까? 시험 시간에 교수의 강의 내용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면 교수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취지로, 어떤 맥락에서 강의한 것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덧붙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정보와 지식을 추가로 더 기억하고 있어야 비판적인 답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실제 암기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학생들이 수용적 사고를 가졌다는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추론된다.

창의성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에서 생각만 한다고 어느 순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된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파편들이 어느날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발현되는 것이다.

현재 주입식 암기 교육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게 한 환경과 제도의 문제였지 암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도 충분히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습 자료만 던져주고 암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별로 정말 암기했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암기가 안 되는지 찾아봐 주고, 어떻게 하면 암기가 잘 되는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진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지식은 반드시 기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쌓인 정보와 지식의 기억이 바탕이 돼야 비로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주입식 암기 교육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주입식 암기 교육은 21세기 현재, 아니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분명히 유효한 교수 전략이다. 다만, 약간의 반성과 전술 수정만이 필요할 뿐이다.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손잡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와 이은주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경영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정보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지난 5월 30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본교 이은주 총장과 이향아 부총장,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학과장 등 교수진과 김선영 대표, 박남진 경영기획실장 등 예술경영지원센터 임직원이 참석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본교 홈페이지와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하고 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속 임직원이 본교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수여해 학업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은주 총장은 "협력 사업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는 "예술경영 전문 지식과 정보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칭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력하다

한국코치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코치협회 김재우 회장과 정영애 부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6월 17일 본교 B동 105호에서 한국코치협회와 상호 우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코치협회는 코칭 보급 사업, 연구·개발 및 전문 코치 인증 제도를 시행해 우수한 코치를 양성하는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교 정영애 부총장, 이향아 부총장, 전광호 학생처장, 이정원 군교육지원처장, 구국모 대외협력처장과 한국코치협회 김재우 회장, 강용수 부회장, 윤경희 이사, 박동진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사이버대와 한국코치협회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코치형 리더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코칭 문화의 보급과 확산 △인적·물적 교류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코치협회 임직원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 시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간부와 가족 교육복지를 위해 협력하다

육군 제75보병사단과 업무협약 체결

육군 제75보병사단 박주성 준장과 이은주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17일 육군 제75보병사단과 군 간부 및 가족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본교 이은주 총장과 육군 제75보병사단 박주성 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술정보 등의 정기적인 상호 교환, 75사단 장병 및 군인가족의 자기계발과 학위 취득 여건 마련, 이를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홍보와 특강에 대한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75사단 군 간부와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군교육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다

공군교육사령부와 업무협약 체결

공군교육사령부 허창회 소장과 이은주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6월 29일 공군교육사령부와 군 간부 교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본교 이은주 총장과 공군교육사령부 허창회 소장이 참석했다. 본교는 공군교육사령부에 군교육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간부 교육을 지원하다

공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 체결

공군군수사령부 심청용 소장과 이은주 총장(사진 중앙)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은 7월 13일 공군군수사령부 심청용 소장과 군 간부 교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본교는 공군군수사령부에 군교육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수동정

김현진 교수

학교 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5월 31일 발간된 『청소년학연구』에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5월 27일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영민 교수

운송부문 물류안전 활동과 물류성과에 관한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6월 30일에 발간된 『물류학회지』 제27권 3호에 「운송부문의 물류안전 활동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미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

임세희 교수

OECD 국가 내 빈곤층 아동의 주거 지원에 관한 논문 발표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6월 28~30일에 진행된 *International Society for Child Indicators 2017*에서는 "Why government should do housing support for children in poor family: Focused on OECD countrie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신지연 교수

해설이 있는 두오 콘서트 Ⅰ·Ⅱ 개최

피아노과 신지연 교수는 6월 17일과 8월 9일,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해설이 있는 두오 콘서트Ⅰ·Ⅱ'를 각각 개최했다.

권구순 교수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의 성과평가 연구 논문 게재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6월 30일 발간된 『정보화정책』 제24권 2호에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의 성과평가 연구: 개별 봉사단원의 특성과 역량, 인성, 인적 네트워크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교신저자)을 게재했다. 6월 16일 *2017 ACUNS Annual Meeting*에서는 "REB Model on Peace Operations of the ROK's Military Contigents to UN Mission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7월 6일 'SDG 11 달성을 위한 도시발전 ODA포럼'에서는 「도시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홍선관 교수

공간 기반 사용자 중심 서비스 모델 연구에 관한 논문 게재

건축공간디자인학과 홍선관 교수는 2월 28일에 발간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에 「공간기반 사용자중심 서비스 모델연구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의신 교수

아시아문화콘텐츠 창작 시스템에 관한 논문 발표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교수는 6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기반학회 연합으로 개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기반 학제간 융복합 국제세미나'에서 「아시아문화콘텐츠 창작, 제작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방안 소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나정혜 교수

Duo Concert 개최

피아노과 나정혜 교수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6월 17일 '나정혜 & 줄리앙 보디몽 듀오 콘서트–플루트와 피아노의 하모니'를 개최했다.

이향아 교수

작품 〈여름〉 등 디자인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The 34th Exhibition Korea Women Visual Designers' Association*에 〈여름〉이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6월 19~24일 진행된 '(사)한국미술협회 도봉지부 창립전'과 5월 12~15일 진행된 *2017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에서는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전시했다. 또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 '2017 제14회 부산국제디자인제'에서는 〈사랑해요, 고마워요〉를 전시했다.

정상원 교수

직무스트레스 원천이 맥락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정상원 교수는 5월 23일 발간된 『한국사회복지행정학』에 「직무스트레스 원천이 맥락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교」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문숙 교수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는 6월 30일 발간된 『한국과학예술포럼학술지』에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의 on–line 대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를 게재했다.

이성태 교수

〈Concentration of Social Industrialization〉 작품 전시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이성태 교수는 5월 12~15일, *2017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에서 〈Concentration of Social Industrialization〉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김동환 교수

4차 산업시대의 주거편의성 변화 예측에 관한 논문 발표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6월 9일 '2017년 전반기 전국부동산학술대회'에서 「4차 산업시대의 주거편의성 변화 예측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거혁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동환 교수는 본 논문으로 학술발표상을 수상했다.

임태순 교수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한 노후생애설계에 관한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6월 3일 '2017 로고스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한 노후생애설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6월 30일 발간된 『로고스경영연구』에도 게재됐다.

이재웅 교수

집합건물 체납관리비의 경락인 승계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는 3월 29일 발간된 『부동산정책연구』 18집 제1호에 「집합건물 체납관리비의 경락인 승계와 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김지연 교수

교사의 게임 인식 유형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6월 30일 발간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에 「학교 장면에서 교사의 게임 인식 유형과 학생 게임 이용 수용도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2017 하반기 지원자를 위한 심리검사특강

분당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된 심리검사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서울·분당·인천·대구의 심리상담센터에서 2017년 하반기 입학 지원자를 위한 심리검사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사이버대학교 지원자라면 학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학업을 앞두고 진로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 4일 인천 심리상담센터에서 'MBTI 성격유형검사 및 해석', 같은 날 대구 심리상담센터에서 '마음의 창 '나는 누구인가?'(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특강)', 7월 7일에는 서울 심리상담센터에서 '투사적 검사를 통해 바라본 나'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멘토링 특강–나눔경영컨설팅 김종혁 대표

멘토링 특강을 진행한 김종혁 대표와 재학생들

멘토링 프로그램과 멘토 활동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멘토 희망자를 위한 특강'이 5월 20일 본교 A동 502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나눔경영컨설팅 김종혁 대표가 '멘토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멘토의 자질과 역할, 리더십, 소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종혁 대표는 "멘토가 되려면 스스로 긍정적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스타워즈', '취권', '굿윌헌팅' 등을 예로 들며 멘토와 멘티 스타일에 따라 멘토링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네이버 밴드 활용 마케팅 사례 발표

마케팅 사례 발표에 참여한 본교 교직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B동 205호에서 6월 8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은주 총장을 비롯한 본교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균 디지털미디어 팀장의 네이버 밴드 이용 현황과 마운틴 TV 관계자의 밴드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특수심리치료학과 개설 특별 심포지엄

특수심리치료학과 개설 심포지엄에 참여한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 B동 205호에서 6월 24일 '2017 특수심리치료학과 개설 특별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특수심리치료의 실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2017년 새롭게 개설된 특수심리치료학과를 기념하고 재학생들의 심리 치료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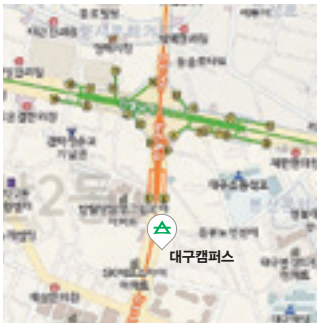
예비 신·편입생 대상 컴퓨터 특강

컴퓨터 활용 특강에 참여한 예비 신·편입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4일 본교 A동 5층에서 '컴퓨터 활용 무료 특강'을 진행했다. 평소 컴퓨터 활용에 자신 없어 앞으로의 학습 활동이 걱정되는 예비 신·편입생을 위한 특강이다. 본교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이성태 교수가 대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용법을 비롯해 직장인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을 교육했다.

대구캠퍼스 이전

본교 대구캠퍼스 대강의실 전경



대구캠퍼스 약도

5월 16일에 대구심리상담센터를 포함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구캠퍼스가 이전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32 기독빌딩 3층이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본교는 올해 안으로 학생 포탈에 캠퍼스 강의실 사용 신청(승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역 캠퍼스를 이용하고, 월별로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평화지원단 고태식 단장 방문

국제평화지원단 고태식 단장과 본교 교수진

7월 10일 국제평화지원단 고태식 단장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한 파병 전문부대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고태식 단장은 본교 심용식 석좌교수, 이정원 군교육지원처장, 김형래 교수, 한수미 교수와 함께 서울사이버대학교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원격 연주 레슨이 가능한 피아노 연습실, 첨단 방송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와 군교육지원센터 등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재방문을 약속했다.

피아노과 나정혜 교수 콘서트 개최

연주회를 개최한 피아노과 나정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피아노과 나정혜 교수가 6월 1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나정혜 & 줄리앙 보디몽 듀오 콘서트 '플루트와 피아노의 하모니'〉를 개최했다. 나정혜 교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플루티스트 줄리앙 보디몽과 함께 청중에게 2시간 동안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60보병사단 방문 · 입학설명회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본교와 60보병사단 관계자들

60보병사단의 주임원사들이 6월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정영애 부총장이 환영 인사를 전하고 학교를 소개했다. 강의실과 스튜디오를 둘러본 주임원사들은 특히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표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상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72보병사단 방문 · 입학설명회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본교와 72보병사단 관계자들

72보병사단장 박문식 준장이 5월 29일 본교를 방문했다. 박문식 준장은 본교 이은주 총장과 교직원의 안내로 본교 캠퍼스를 둘러본 후 총장실에서 학교 소개를 들었다. 이후 6월 9일에는 박문식 준장과 72보병사단 간부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해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아동복지전공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들

6월 17일, 7월 1일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다양한 응급처치법(일반 과정)을 교육받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직접 수료증을 받았다. 아동복지전문가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특강이었다. 본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해 재학생의 취업과 이직에 도움이 된다.

특수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 임상실습

8회에 걸쳐 진행된 특수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 임상실습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는 '자기성장을 위한 성인집단미술치료' 임상실습을 진행했다. 12명의 소수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기초반은 6월 19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실습을 진행한다. 자유로운 그림 그리기와 색을 통한 기억과 감정 알아차리기 등 긴장감을 해소하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동산학과 신·편입생 OT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부동산학과 교수진과 학생들

2017년 2학기 부동산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7월 29일 본교 A동 5층 강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동산학과 이태교 석좌교수, 김동환 학과장, 이재웅 교수와 2학기 신·편입생이 참석했다. 부동산학과 연중행사, 학사제도 안내를 통해 신·편입생에게 학과정보를 제공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충청지역 특강

충청지역 특강에 참여한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충남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7월 15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역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학생처장인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가 진행했다. 학생들은 특강을 듣고 토론하며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눴다.

제주지역 특강

제주 지역 특강에 참여한 재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제주시 대형식당 자연인에서 5월 7일 제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처장인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가 진행한 특강 주제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다. 학습에 대한 초인지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영남지역 연합모임

울산 십리대밭길에서 진행된 영남지역 연합모임

울산 태화강에서 5월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영남지역 연합 모임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울산포항 경주,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 38명과 이은주 총장, 박기훈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함께 태화강 십리대밭길을 걸으며 각 지역 학생회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업에 대한 정보도 교류했다.

2018학년도에 새로 만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설학과**를 소개합니다.

신설되는 학과들은 최근의 사회 변화 및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성 악 과

사이버대학 최초 성악과
최우수 교수진의 이론 및 실기 전공지도

실용음악과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주도해 나갈 음악예술인
시대적 흐름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체계적 커리큘럼

창업비즈니스학과

사람 중심의 성공 창업 플랫폼
A부터 Z까지 창업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실용적인 교육

한국어문화학과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스마트 파워의 산실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취득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 모바일 강의수강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 학생 맞춤형 1년 4학기제로 졸업은 빠르고
-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으로 취업할 곳은 많고
- 사이버대학 최대 교내장학금으로 든든하고

(국가장학금 외, 2016공시기준)

대학원 : 11월 6일(월)부터 원서접수 ☎ 02-944-5500

학 부 : 12월 1일(금)부터 원서접수 ☎ 02-944-5000

사회복지학부	심리·상담학부	사회과학부	융합경영학부	IT공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노인복지전공	군경상담학과	법무행정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콘텐츠기획·제작학과	피아노과
복지시설경영전공	가족상담학과	보건행정학과	금융보험학과	정보보호학과	**성악과** (신설)
아동복지전공	특수심리치료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신설)	세무회계학과		**실용음악과** (신설)
청소년복지전공			**창업비즈니스학과** (신설)		
				디자인학부	**자유전공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자유전공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